

<2018년 9월 2일 주일말씀>

1.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본 문 요한3서 1장 2절

창세기 28장 15절

여호수아 1장 9절

◎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생중계 해 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현실의 일들’ 을 말씀해 주면서
그 뜻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신혼골수에 박히도록 말씀했습니다.

◎ <근본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목적이니,

하나하나 초근초근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 오늘 성경 본문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말은,

- <영혼>이 잘돼야 ‘육신’ 이 잘된다.

-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잘된다.

- <신앙생활>이 잘돼야 ‘육신 세계’도 잘된다. 함입니다.

- ◆ 이 말씀 역시 <실천하는 자>만 알고 누리지,
<실천하지 않는 자>는 이론만 알고 실존적인 것은 얻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만이 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 ◆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 ◆ <말씀을 듣는 맛>은 ‘말씀을 지키는 맛’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맛>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려고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 <말씀>을 **듣는 데** 은혜, **지키는 데** 은혜, **지켜서 얻는 데** 은혜
이 세 가지가 딱 부합돼야 합니다.

- ◆ 지금은 믿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고, <믿고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뛰고 달리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 첫째, **말씀을 듣는 데** 시원하게 하고,
- 둘째, **말씀을 지키는 데** 시원하게 하고,
- 셋째, **말씀을 지켜서 얻는 데**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이 그리도 기뻐하십니다.

◎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자기가 장남인데 축복을 못 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가로 도망가면서,
<벤엘>이라는 지역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다시 고향으로 올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각종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하니,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언제 돌아오느냐’ 가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20년 만에 돌아온다.” 하고 말했으면,
야곱이 기절초풍하면서 “그러면 안 갈래요.
죽든지 살든지 에서와 싸울 거예요. 내가 왜 고향을 떠나야 되요?”
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하면 기절초풍하데요?

고로 하나님은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동>만 시켜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니, 마음 폭 놓고 가라.”

하십니다.

- ◆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언제 돌아올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가에 가서 21년 동안 조건을 세워서
양떼를 몰고 돌아오고,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 만일 야곱이 외가에 안 갔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뤄졌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얻을 것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 <야곱의 노정>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노정을 따라갔습니다.

그 자손 요셉 때도 또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사랑을 누리고,

형제들까지 그곳으로 불러들여 종족이 번성케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선조들이 살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형 노정, 견본 노정 표상 노정>이라고 합니다.

- ◆ 그 표상을 따라서 후손들도 그 노정을 가되,
<차원>이 다르게 가고, <여건>이 다르게 갑니다.

- ◆ 선조들을 따라서 가지만, <시대>마다 다릅니다.

<구약의 노정>을 신약에서 걸으면서 ‘신약역사’를 펴 나가고,
<신약의 노정>을 따라서 ‘새로운 1000년 성약역사’를 펴 나가되,
차원과 여건이 다릅니다.

<역사>가 ‘전형 노정’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노정, 신약 노정, 성약 노정 이렇게 가고,
또 <족속>으로 보면,
아브라함 노정, 이삭 노정, 야곱의 노정, 요셉의 노정, 이렇게 갑니다.

- ◆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로 <신약역사>도 그와 같은 십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예수님의 노정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노정을 간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 고통을 받으며 2000년 동안 온 것입니다.

- ◆ 가장 큰 이유는,
<구약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까지 연대죄로 받는 것입니다.

- ◆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때 나지 않았던 자들까지 <종의 세계>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에게 해당되는 축복>도 주시고,
<전체에게 해당되는 형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로 다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다 잘됩니다.

- ◆ 이같이 <역사의 노정>을 보면서 이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으면서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 ◆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 말씀은
<야곱, 요셉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선생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주인 되는 자, 이끄는 자, 머리가 되는 자>가 돌아와야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 ◆ 선생은 1999년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내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올게.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내가 외국 사람들 전도 많이 하고 올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바로 올게.” 했습니다.

- ◆ 이렇게 말하고, ‘2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이것저것 조건을 다 세우고,

시대 십자가를 지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 ◆ 1999년에 해외에 나갈 때, 홍콩을 통해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펴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홍콩 교인들이 밥도 가져다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 ◆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
축구하는 곳에 가서 인사하면서 아시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축구의 나라’라서 매일 축구를 하니까
그들끼리만 하고 잘 안 꺼냈습니다.

그래서 양념으로 잠깐 할 수 있냐고 해서 같이 축구를 했더니,
그들이 “잘한다. 재밌다.” 하며 내일도 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만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2000년이 됐지만,
섭리역사는 100년도 안 됐기에 이야기를 해도 안 했습니다.

고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명, 20명, 30명... 문화회원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죽 모아놓고 <평화배 축구대회>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문화회원이 관리를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못 가르치고 친하게만 지내고 회원만 모집했습니다.

- ◆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이곳, 저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유럽에 관리자가 없으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 ◆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듯 했습니다.

- ◆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시대 십자가’를 지고, 조건을 세워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잠시 쉰다.

- ◆ 해외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일이 있었는가 하니, 너무 많아서 생각이 다 안 날 정도입니다.

- ◆ 그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렇게 많은 비행기가 다니는데, 저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있을까?
내가 시대 역사를 잘못 끝어서 하나님께서 시대 에덴동산에서 쫓아내고
외국에서 살라는 것인가?’ 하며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 ◆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다시 못 오시나?
죽어서 시체로 오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극적인 상황까지 갈 정도로 영적 전쟁이 심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갈 정도로 바닥치기를 했습니다.

- ◆ 중국에서는 1위안(당시 환율130원)짜리 밥을 먹으며 다녔습니다.
죽 조금과 장아찌 몇 개였습니다.

중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뿜을 때가 있었지만,
말씀은 못 전하고 회원만 모집했습니다.

- ◆ 그때 수시로 성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 ◆ 어려운 상황은 계속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법정으로 간다. 구속한다.’ 하는
별 이야기를 들으며 처절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조은 목사에게 말하기를,
“만약 내가 죽으면, 네가 나의 사연을 전해 주어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다녀라. 내가 순교하게 되면,
저들은 내 사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해 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밤이 늦도록 있다 내려오면서
“오늘 안 잡혔다. 또 집으로 가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세계로 보내야지.” 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뒤를 12번씩 더 돌아봤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보면서 “우리가 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하니,
조은 목사가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사람을 쓰고
“탄다.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간다.”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 ◆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고 2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또 외국에 나간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국에 못 나가게 딱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 ◆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 ‘이상세계’가 이뤄지고, 월명동에도 외국에서 수백 명씩 몰려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표 한 사람씩만 뽑아도 인사를 다 못할 정도입니다.

- ◆ 눈물의 씨를 뿌리고 돌아오니, 선생이 돌아오듯 해외 사람들도 월명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고, 뜻있고,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모든 상황을 볼 때 다시 오기가 어려웠으나, 한국에 가서 시대 십자가를 져도 가겠다고 결정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시대 죄를 청산해 주고, 조건을 세워 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의 거룩한 성산에서 너희를 기쁘게 해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 설교해 주겠습니다.

◆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곳’에 함께해 주십니다.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틀어버리십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가지고
1000년사 성약역사를 펴십니다.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택한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
역사를 펴가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고 다 끝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심히 분노하리라.

보낸 자가 태어난지 70년 만에 최고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지 40년 만에 십자가 조건까지 다 세워 주고
끝내버렸느니라.

그리고 내 보낸 자가 이렇게 청청하게 외치고 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사람을 통해 말씀한 것을 진정코 알고 행하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성경의 모든 일 중에 안 이룬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탄이 이뤘느냐? 마귀가 이뤘느냐?
사탄, 마귀가 계획적으로 괴롭혔어도 정녕코 내가 이루었느니라.

이제 휴거를 이루고, 나의 모든 뜻과 목적을 다 이루었느니라.
구시대는 이를 수 없나니, <새 역사>에서만 이루느니라.

이 역사를 믿고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의 사랑의 대상이 되느니라.”

- ◆ 이제는 이 시대 말씀을 듣고 모두 불같이 외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시대 사명자>를 더 증거해야 됩니다.

- ◆ <구시대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늘 구름을 쳐다보며 삽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격입니다.

- ◆ 여러분들은 배워서 다 알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더 멋있게 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이상세계를 이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미 만들어 났으니, 뛰고 달리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오늘 말씀대로 1999년 이후 세계 20~30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치기를 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할 때가 내 인생에 딱 두 번 있었는데,
또 한 번은 월남전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어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온 하늘이 하나님의 눈 같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녕코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 ◆ 그랬는데도 1년 동안 전쟁을 하며
수십 번씩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평화의 전쟁’을 증거합니다.

- ◆ 이같이 해 왔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大)성전, 하나님의 궁’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잘~~ 해야 됩니다.

삼위와 주의 심정을 알아주고, 그 내용을 알아주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 이 역사는 100년이 가면 세계를 점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로 지금 선생은 ‘100년 후에 불 설교, 200년 후에 불 설교, 300년 후에 불 설교’ 를 다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 자들의 이름까지 다 불러 놓고 갑니다.

나는 그 이름을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 1000년 역사를 다 짜놓았습니다.

노래도 해서 남겨 놓고, 또 운동하는 것도 녹화해서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5만 잠언을 받아서 남겨 놓지 않았습니까?

글 쓰는 데만 불펜 3800자루를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3800자루를 세라고 하면 지루해서 세다 말 것입니다.

한 자루에 약1km 정도를 쓰니,

글을 써서 3000~4000km를 갔습니다.

중국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는 글을 못 쓰게 하니,

아예 뇌에 책 7권 분량의 잠언을 외워서 왔습니다.

이같이 지독하게 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총으로 위협을 했어도, 하나님 역사의 뜻을 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서 나의 뜻을 이룬다.” 하신 말씀대로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시어 이룬 것입니다!

고로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다 해 놓았다. 끝났다. 지금은 끝나고 쉬는 기간이다.”

합니다.

- ◆ 신약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육>이 죽고, ‘영’ 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한 대로입니다.

- ◆ 이 시대는 주가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살았습니다.

고로 <영>은 살아서 황금성 천국에 가 있고,

<육>은 ‘하나님 땅의 보좌’ 에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 이같이 할 자는 오직 메시아 밖에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함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 으로 만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한 것입니다.

- ◆ 이 일을 위해 13세 때부터 산(山)기도를 다니고,

15세부터 본격적으로 수도생활에 들어가서

21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께 세밀하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다 해 놓고, 이루었으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셨으니,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 묻는 말에 다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증인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십니다.

<말씀 마무리>

◆ <주>가 돌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모두 실천하기 바랍니다.

* 인천 지역에 해당되는 말씀

▶ 인천 지역에 선생이 한 가지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

<인천 교회>는 맥아더 장군이 상륙 작전을 한 기념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리를 타고 오다 보면 큰 교회가 보이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짓게 하시고,
우리가 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 그렇게 못 짓기 때문입니다.

고로 전문가를 통해 짓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 사연이 있지만, 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 ▶ 인천 지역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전도 많이 해서,

가을에 월명동에 단풍놀이 하러 많이 오기 바랍니다.

- ◆ 그리고 각 교회도, 해외도 열심히 전도해서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바랍니다.

- ◆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열심히 했기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의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 선생처럼 씩씩하게, 담대하게 행하고,
다시 돌아왔으니, 신나게 멋있게 살기 바랍니다!

- ◆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늘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생각을 맞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해서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녕코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된 권세입니다.

- ◆ 〈휴거 역사〉는 ‘보낸 자가 살아있을 때’ 까지만 일어납니다.

마치 〈남녀의 사랑 관계〉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까지만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지금!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했으니, 이제 열심히 뛰고 달리며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모시면서 기뻐하는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하겠습니다.